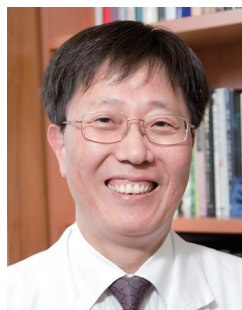


# 남자 옷을 입은 여의사

글 이재담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1849년에 의사가 된 미국의 엘리자베스 블랙웰보다 37년 앞선 1812년 영국에 이미 서양 최초의 여의사가 있었다는 학설이 최근 보고되었다. 1809년 에든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한 제임스 배리라는 인물이 사실은 신분을 속이고 남장(男裝)을 한 아일랜드 출신의 마가렛 앤이었으므로 그녀가 서양 최초의 여성 의사라는 것이다.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 에든버러에 도착하면서부터 남장을 한 배리는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거의 모든 과목의 시험을 단번에 통과하여 1812년 의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이듬해 런던의 가이병원과 성 토마스병원이 공동 개설한 외과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왕립 외과의사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녀는 곧 군에 입대하는데 친척 중 한 명이 장군이었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군대야말로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에 좋은 곳이었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많은 군의관이 필요했던 육군이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인 듯하다.

군의관 배리는 1815년 6월에 벌어진 워털루 전쟁을 시작으로 인도, 남아공, 지중해연안, 캐나다를 전전하면서 야전병원과 감옥, 한센병 환자수용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처우와 영양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힘썼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모자가 모두 생존한 최초의 제왕절개수술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남아공 의학 역사에 남은 대단한 성과였다. 아이의 부모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기의 이름을 ‘제임스 배리 무니크’로 지었다. 그녀는 환자에게는 친절했지만 동료나 상사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다. 크림전쟁 때는 유명한 나이팅게일과 연쟁을 벌인 적도 있다.

나이팅게일은 ‘나는 병원 뜰에 선 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 위에 올라앉은 그로부터 모욕적인 훈계를 들어야만 했는데… 그는 내가 본 가장 무례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상냥하고 직업적 기술이 뛰어난 의사였으며 병사들의 음식과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썼다. 그는 채식주의자이면서 금주주의자였는데 언제나 존이라는 남자 하인 한 명과 개를 동반하고 다녔다… 그가 죽은 후 나는 그가 사실은 여자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작은 키, 왜소한 체격, 부드러운 손, 그리고 특이한 새된 음성에도 주위 사람들은 그녀가 여성이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 남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지 않았으며, 1865년 이질에 걸려 죽기 직전 자신의 사체를 절대로 남들에게 보이지 말고 사망할 때 복장 그대로 매장하라는 지시를 남겼다. 하지만 사체를 살피본 하녀가 소문을 퍼트렸고 신문들이 이를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일생을 군의관으로 근무한 고위직 장교의 성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비난이 두려웠던 영국 육군은 배리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최근 옥스퍼드 인명사전이 배리에 대해 ‘1865년 의학교를 졸업한 엘리자베스 개럿 앤더슨이 이 제깃 누려온 ‘영국 최초의 여의사’라는 명예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기술한 것을 보면, 학계에서도 배리가 여성이었으며 따라서 그녀가 영국 최초의 여자 의사였다는 새로운 학설이 점차 지지를 얻는 것 같다. 🌟